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빠듯'...자금사정 압박 심화

■ 광주상의,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분석

'75' 기록 전 분기 대비 14p ↓...자동차만 기준치 상회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 '최대 리스크'...수출도 부진

광주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한 분기 만에 큰 폭으로 꺾였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증동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상승이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과 자금사정을 압박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빠르게 얼어붙는 모습이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 BSI는 75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89)보다 14p 하락한 수치다.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

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경영 항목별로 보면 매출액 전망은 86에서 90으로 소폭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79에서 75로, 설비투자는 93에서 89로, 자금사정은 71에서 64로 각각 떨어졌다. 매출 기대는 일부 남아 있지만 실제 수익성과 유동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자금사정 64는 주요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꼽은 상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는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61.7%에 달했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 30.8%, 소비 회복 둔화 25.2%, 자금조

달 및 유동성 문제 21.5%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 상승 부담에 대비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경영 전반의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심리도 위축된 모습이다. 상반기 투자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은 53.3%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 응답도 41.1%에 달했다. 투자 축소·지연 이유로는 수요 등 시장 수요 약화 36.4%,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 20.5%,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 18.2%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자동차·부품 업종의 2분기 전방 BSI는 122로, 신차 효과와 생산 확대,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바탕으로 유일하게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반면 전자제품·통신은 81에서 50으로, 기계·장비는 95에서 82로, 철강·금속은 67에서 20으로, 화학·고무·플라스틱은 88에서 0으로, 식음료는 100에서 40으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대·중견기업은 86에서 150으로 뛰며 호전 전망을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90에서 67로 떨어져 약화 전망이 우세했다. 수출 규모

별로도 수출기업은 86에서 64로, 내수기업은 90에서 78로 모두 하락했다. 완성차 중심으로 한 일부 대기업과 달리, 원자재와 물류비 부담을 직접 떠안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증동 분쟁으로 인한 물류비 급등이 기업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정책과 더불어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물류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근로시간 ↓·경쟁력 ↑'...광주상의 '워라밸+4.5' 확산

광주지역 경제계가 인력난과 조직 생산성 개선이라는 이중 과제 해결을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도입 확산에 나섰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상의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CEO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역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주요 내용과 지원 혜택이 소개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인력 유치와 조직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기업 대표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직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조직 분위기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청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수준과 방식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이 지원되며,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경우 월 60만~80만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상의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CEO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역 기업 간담회'가 개최했다.

현장 의견 수렴...4.5일제 도입 기업 월 최대 60만원 지원 금요일 조기퇴근 사례 공유...“인력 확보·조직 개선 효과”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전면 도입뿐 아니라 일부 부서나 직무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허용돼 기업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다. 광주상의는 제도 확산을 위해 자문·상담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노무 전문가와 기업을 1대1로 매칭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설명회

개최와 우수사례 발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참여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전은영 광주상의 협력사업부장은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사업의 강점"이라며 "기업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고성능 GPU 컴퓨팅 자원 지원 AICA, 기업·대학·기관 등 모집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에 나선다. 8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AICA '2026년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 이용자 정기모집'을 진행하고, AI 모델 학습·개발에 필요한 GPU 자원을 활용할 기업·기관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함께 추진하며, 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AI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AI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국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협·단체 등이며, 기관별 최대 2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과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H100 GPU 기반 1트랙 △B200 GPU 기반 2트랙 △초고성능 연산 환경(HPC) 기반 3트랙으로 총 3개 트랙으로 운영되며, 45개사 내외를 신청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GPU 자원을 비롯해 기본 10TB 스토리지, AI 개발도구, 보안서비스 등이 통합 제공된다.
김은지 기자

"상품성·경제성 개선"...현대차, '2027 코나' 출시

고객 선호도 높은 사양 대거 기본 적용...경쟁력 제고

현대자동차가 상품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대표 소형 SUV '2027 코나'를 지난 7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2027 코나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H-Pick(에이치픽)' 트림에 기본 적용해 트림의 가치를 대폭 높이고, '모던' 트림의 사양 최적화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실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7 코나 기술력 1.6 터보 H-Pick 트림에 고객 선호 사양인 듀얼 풀오트 에어컨, 12.3인치 내비게이션, 레인

센서, 18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등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이어 2027 코나의 기본 트림인 '모던'은 사양 합리화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이뤘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코나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부터 차별화된 고급감을 원하는 고객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라인업업을 세밀하게 다듬었다"며 "실용성과 트렌디한 감각을 동시에 갖춘 2027 코나가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더해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신용등급 'A+'로 상향 조정 대내외 신인도 향상·자금 조달 경쟁력 '청신호'

금호타이어는 한국신용평가(한신평) 기업신용등급이 기존 'A0'에서 'A+'(안정)로 두 단계 상향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신평은 이번 등급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 내 안정적인 영업 기반, 수익성 중심의 판매 믹스, 영업현금흐름 바탕의 차입금 감축 등을 꼽았다. 한신평은 보고서에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주요 거래처 및 국내외 생산기지를 다각화해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미 및 유럽지역 유통채널의 공격적인 확장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이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차입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실제로 금호타이어는 최근 고인치 타이어와 전기차 타이어인 '이노브' 등 고부가 제품군 비중을 늘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금호타이어는 향후 자금 조달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으며, 브랜드 신뢰도 상승에 따른 영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2025년 기준 4조7013억 원의 매출과 5759억원의 영업이익(영업 이익률 12.2%)을 기록했다. 올해는 5조100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고인치 및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재무구조를 견고히 다지고 사업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갤럭시 XR, 기업용 관리 시스템 탑재 안드로이드 XR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

삼성전자가 자사 혼합현실(XR) 기기 '갤럭시XR'에 구글과 공동 설계한 기업용 관리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한다. 삼성전자는 8일 갤럭시 XR 대상 '안드로이드XR'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XR은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 설계한 XR 전용 플랫폼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기를 위한 기업용 관리·제어 시스템인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XR 버전이 적용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복잡한 설정 없이 기기를 쉽고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제로터치 등록, QR코드 인식 등 다양한 초기 설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십, 수백 대의 '갤럭시 XR' 기기를 쉽고 빠르게 세팅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의 관리자는 비밀번호 정책, 와이파이 설정, 기기 사용 제한 등을 중앙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필요시 '갤럭시 XR' 기기를 잠그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어 강력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여러 기기에 기업용 앱을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관리 구글 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업용 기능 외에도 일반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기능을 업데이트한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키보드의 높이와 거리, 위

치를 원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또 데스크탑 작업 환경을 복원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갤럭시 XR'을 재부팅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던 앱을 최대 3개까지 기존 화면에 그대로 유지해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접근성 기능도 강화했다. 단일 시선 추적과 포인터 맞춤 설정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용자들도 '갤럭시 XR'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세롭고 편리한 기능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실현실'에 추가되는 '오토 스페셜라이제이션' 기능은 크롬 브라우저와 유튜브의 2D 콘텐츠를 3D 몰입형 영상 및 사운드로 변환해 실감나는 감상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MX사업부 XR R&D팀장 최재인 부사장은 "XR은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새로운 경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이라며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지원을 통해 기업이 XR 기반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업무, 탐색,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최대 5년까지 안드로이드 XR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